

남해관광문화재단, TPO 가입 운영위 개최·만장일치 승인

윤 이문석 기자 | 승인 2022.07.20 21:24

남해관광문화재단(이사장 장충남)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4월 부산 북구에 소재한 TPO사무국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TPO는 '제38회 TPO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했다.

TPO는 지난 2002년 8월 '제5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 아·태 지역 주요 도시와의 공동마케팅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관광산업 발전 목적협의체다.

올해 4월 기준 총 190개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주요 가입 도시는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이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문석 기자